

로마서 묵상 4
(11/20/2020, 금)

찬양: 505(268)(온 세상 위하여)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8-10

말씀에 대한 이해

롬 1:8-17 의 말씀은 사도바울이 로마 방문에 대한 소망과 목적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8-10 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와 함께 그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방문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로마교회로 인한 감사. 8 절 -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로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당시 사도바울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믿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은 로마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것 이상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우리에게 결국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로마교회는 사도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흠어진 성도들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복음전파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숙한 제자들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교회가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만방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곳에 예배의 처소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는 일종의 복음 전파의 결과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당시 바울이 체험한 것과 같은 복음전파와 교회의 설립의 과정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으며,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선교지 소식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교회를 위한 기도. 9 절 -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교회로 인해 감사한다고 말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의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어떤 대상을 위한 사랑과 관심의 최고의 표현은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하며, 교회와 사명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 역시 먼저 깊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사역 내내 땅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깊이 목상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 에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간구이며, 주님과 대화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 교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 총회장(212대)을 지내신 고 이승만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 19 세의 나이에 남동생과 함께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인 고 이태석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고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나이가 어린 여동생들은 집에 두고 이승만 목사님과 남동생만 먼저 피난을 떠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 때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떠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서 서로 만나자.” 그리고 그것은 살아생전 어머니께 들은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아울러 기도로 성도들과 서로 영적으로 만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영적인 끈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아울러 기도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과 교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10). 10 절 -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도하다’ 혹은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교회의 영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는 로마제국의 중심지로서 로마교회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방문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의 선교적 비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을 생각하여 선교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로마교회의 방문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큰 그림을 보는 가운데 마치 작은 그림을 맞추어 가는 마음으로 작은 목표를 놓고 깊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큰 그림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그림을 그리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교회를 향해 열망을 품었던 바울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가진 열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여러분이 그리는 사명자로서의 그림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로마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과 영적으로 교통한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대상자들, 선교지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35 곳의 선교지들과 기관들을 오늘도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영적 승리가 계속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